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새봄, 새희망을 실고 강원건설인도 힘차게 달려요~

3.1절 봄맞이 건강달리기대회

- 2015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 개최 안내 -

도회는 강원도와 공동으로 지역건설업체, 자재상산업체, 설계업체 등의 수주지원을 통한 잠재된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발주기관을 초청하여 「2015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 시 2015년 2월 26일 (목) 14:00 ~ 16:00

장 소 원주 아모르컨벤션 웨딩(4층), 원주시 북원로 2888

- 참석대상 :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참가비 무료)
- 주요내용 : 도 및 시군, 유관기관의 2015년도 발주계획 설명 등
- 발표기관 : 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교육청, 한국도로공사, 국방부 등
- 기타사항 : 발주계획 설명회 책자 당일 현장 배포 예정

CAK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정 동 기 의 회원일동

두산건설 삼척~포항 철도공사 낙찰

동해선 17공구 1,472억 수주

동해선 삼척-포항 간 철도의 마지막 공구 시공사로 두산건설이 선정됐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동해선 삼척-포항 철도의 17공구 노반 건설공사를 1,472억원에 수주했다.

두산건설은 갑을건설과 함께 이번 입찰에 참가해 1·2차 적정성 심사 통과 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율은 두산건설 90%, 갑을건설 10% 등이다.

동해선 삼척-포항 철도 17공구는 삼척시 근덕면-사직동 간 15.16km로 교량 6개소(1.08km), 터널 9개소(9.49km) 등이 이어진다.

공사구간 내에는 2km 이상의 장대터널 3개소도 들어선다.

이번 공사는 이달 중 계약 체결 후 착공에 들어가 2019년 2월 준공될 예정이다.

히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건설협회 도회 3·1절 건강달리기 원주 다짐 대한건설협회 도회 정동기 회장과 회원들이 3·1절 기념 시·군민 건강달리기대회의 출전 및 완주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도육상경기연맹 역대 최대 규모 심판강습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강원도육상경기연맹이 역대 최대 규모의 심판강습회를 연다.

도육상경기연맹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강원체고 세미나실과 운동장에서 2015 제96회 강원도 전국체전 대비 심판강습회를 실시한다. 올해 강습회는 당초 100여명 정도 예상했지만 240여명이 등록하면서 육상 심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습회 이후 자격 취득자는 오는 10월 강릉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투입, 원활한 경기운영과 성공 체전을 도울 예정이다.

스포츠생리학과 스포츠심리학은 강원대 홍관이 교수와 천승현 교수가 각각 강의한다. 실무적

성격이 강한 분야별 강사로는 스포트경기 백형훈 대한육상경기연맹 지도자육성위원장 △도약경기 유덕수 한국체대 교수 △투척경기 김상대 부산예대 교수 △경보경기 김지수 대한육상경기연맹 경기위원회 위원 △로드레이스 유문종 대한육상경기연맹 시설위원장이 각각 맡는다. 강습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임상규 대한육상경기연맹 경기위원장이 담당한다.

최선근 도육상경기연맹 실무부회장은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우수한 심판을 배출해 전국체전은 물론 각종 국내의 대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올 도내 건설공사 발주액 4조395억

사업 3436건 투입... 상반기에만 3217건

道·강원건설단체연 26일 원주서 설명회

올해 강원도내 건설공사 발주 금액이 4조원에 달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강원도와 강원건설단체연합회는 26일 오후 2시 원주 아모르 컨벤션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건설 및 계약관련 관계자, 건설단체 및 건설자재 생산업체 관계

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도와 시군을 비롯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교육청,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LH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 올해 발주되는 건설공사의 세부적인 추진상황

을 설명하고 지역업체들의 수주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 58개 기관에서는 총 3436개 사업에 4조39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건설공사는 3조8728억원(2782건), 설계용역은 1667억원(654건)으로 건설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95.8%다.

기관·단체별로는 도와 18개 시군이 2조5344억원(2422건)으로 전체 물량의 62.7%며 원주국토관리청이 6781억원(298건), LH

강원지역본부가 3954억원(29건), 강원도교육청 1316억원(261건),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992억원(187건) 순이었다.

사업비 규모로는 100억원 이상 공사가 2조5627억원(63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2993억원(48건), 10억원 이상 50억 미만 6514억원(355건), 10억원 미만 공사 4610억원(1435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만 전체 발주계획의

80.8%인 3조2645억원(3217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와 시군에서는 지역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비율을 85% 이상으로 정했으며 유관기관은 70% 이상 구매하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업체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자재와 장비, 인력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